



북한 기도회

2021년 10월 - 11월





기도제목1. 북한의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합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최근 북한의 여러 핵 활동 정황을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 재가동, 그리고 폐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 따르면 이미 북한은 2018년을 기준으로 최소 10개에서 최대 60개 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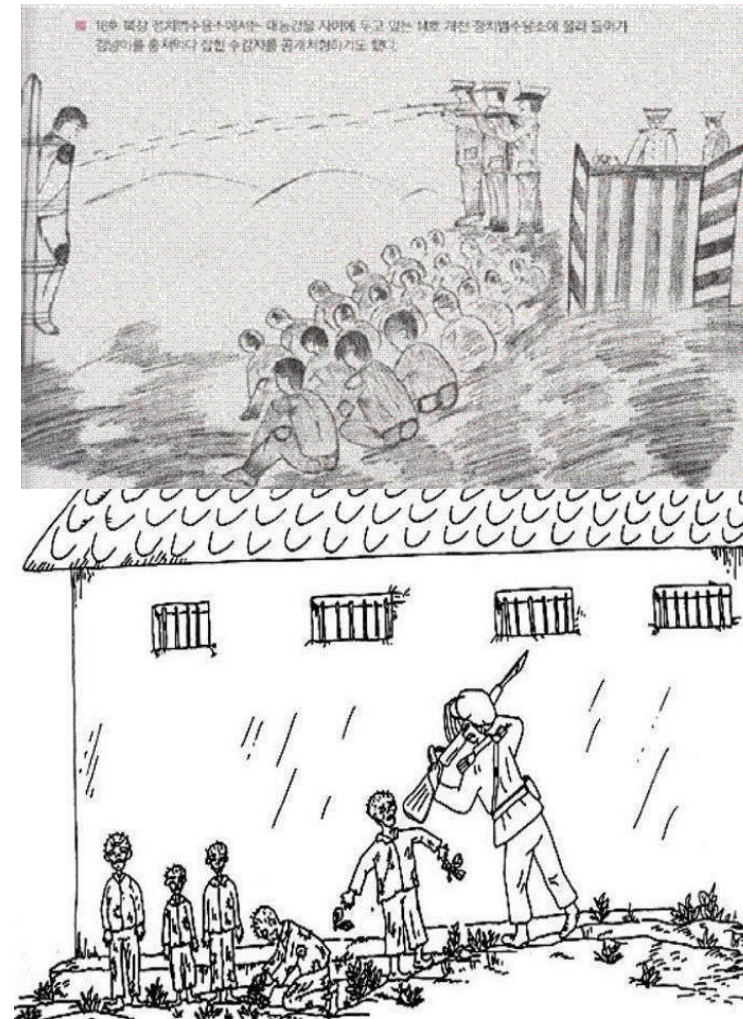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2.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및 그와 유사한 수준의 구금 시설들이 최근 신설, 확장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언론인 데일리 NK에서는 최근 북한의 정치범 수감자 수가 2만여명 증가하여 총 23만여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과 극심한 강제 노동, 비인간적인 대우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면 석방의 희망조차 없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 속히 철폐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북한 정치범 수용소 모습을 묘사한 그림 〉

기도제목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치범 수용소의 확대는 결국 더 많은 신자들의 수감과 핍박을 상징합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이 북한에서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이어가는 성도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신앙으로 인해 수용소에 수감되었거나 오지로 추방된 성도들과 그 후손들을 기억하며 북한이 기독교 박해를 하루속히 중단하도록 기도합시다.



<데일리 NK 종합 21년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 현황>

기도제목 4.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전해져 온 북한 내부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부실한 의료체계 속에서 코로나로 의심되는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앓아 눕거나 죽고 있습니다.

국경 통제와 밀수 단속 및 북한 내 이동 통제가 극심합니다. 소규모 모임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장마당도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 불리우는 외부사조 통제 법을 만들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 기조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정책이 주민들의 삶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5.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 되면서 이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선교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선교 사역도 큰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계속된 감청과 감시의 위협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교지를 지키며 사역을 이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류 국가의 박해가 심해지면서 현장사역자들이 신앙/선교 활동을 이유로 잡혀가거나 취조를 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장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신변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제목6.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 여성들의 성경공부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비밀리에 탈북 여성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3국의 종교 탄압이 심해지면서 위축된 분위기와 시부모와 남편의 학대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북 여성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탈북여성 성도들이 믿음 안에 제자로 성장하고, 가족들도 복음화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여성들이 북한 복음화와 통일 한국의 선교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7.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와 이를 돕기 위한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가 급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더욱 혹독한 추위로 고생합니다. 겨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충분한 식량과 떨감, 의약품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지에 추방된 성도들이나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국경 통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의 주민들과 성도들을 돕는 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